30일~10월1일 ACC 예술극장1
창작공연 공모 '광주 이야기…'
최우수상 조홍준 작품 무대에

40년 전 이야기, 40년 후 또 다른 이야기로

1980년 광주 남구 월산동 수박등의 한 야산, 평범한 소년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몸담고 지내온 동네를 벗어나 그간 은폐돼왔던 세상의 비극과 마주한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먼 미래 2060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금 풀어헤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ACC 예술극장 1에서 시민 이야기 '수박등 아이들'의 선보임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2018년 ACC 창작공연 스토리 공모인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홍준 작가의 작품을 스토리화 한 것.

당시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에는 총 391건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ACC는 역사적 사실이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수 받았고 구성이 튼튼한 작품에 한해 다른 콘텐츠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창작공연 '수박등 아이들'은 1980년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수박등에 살았던 아이들의 실제 경험담을 미래 사회로 각색해 음악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품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인류애의 가치를 찾아 나서는 광주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등장인물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인물로 상징화한다. 40년 전 1980년 대한민국과 오늘날 유럽의 동쪽 끝, 그리고 40년 후 또 다른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로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에게나 일어났었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연출 이용주

홍준역 함형래

연지역 김서영

주요 출연진으로는 각색 오세혁, 연출 이용주, 작곡 연리목, 음악감독 한광훈씨가 참여한다. 주인공 홍준 역에는 함형래, 연지 역에 김서영, 익석 역에 진민범, 상목 역에 김정태씨가 함께한다.

ACC는 자체 발굴한 이야기의 확장과 공연화를 통해 시민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수렴된 관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5000원, 예매 등 자세한 사항은 ACC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자신의 삶 찾아 떠나는 모험"

소설가 이화경 동화 '윗도리' 펴내

하늘을 헤엄쳐오던 물고기가 산봉우리에 이르러 새로 변한다. 커다란 호랑이를 만나 나무 위로 피신한 주인공 '윗도리'는 다시 용기를 내 호랑이와 맞서 싸운다.

동화 '윗도리'에 나오는 기발한 상상의 이야기이다.

아랫도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랫도리를 찾아 모험을 떠난 이야기를 담은 창작동화가 발간됐다.

우리의 전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 '윗도리'는 부모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가 이화경이 동화 '윗도리'를 펴내 눈길을 끈다. 이번 동화는 올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인형극 '윗도리'의 원작 동화이기도 하다. '문화공동체 연나무 말랑이할머니의 이야기극장'이 화순 향교에서 초연한 이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 공연을 거듭하며 화제를 모르고 있다.

이번 작품 '윗도리'는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를 넘을 때마다 부딪히는 난관을 극복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윗도리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윗도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아랫도리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엉덩이가 그 다음에는 허벅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목이 나타난다.

이번 동화는 표지 뒷면에 QR코드를 인식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의 '윗도리' 소리 일부를 감상할 수 있다. 열린마당에서는 동화작가는 물론 동명의 인형극을 초청할 수 있다.

한편 인형극과 저자가 함께하는 북토크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2022한국지역도서전 본 마당(동구산수문화마당)에서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매! 국악마씸' 광주-제주 문화교류 신명났다

시립창극단 등 합동 공연

광주와 제주의 지역 간 문화교류가 신명나는 음악 속에 진행됐다.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오매! 국악마씸' 공연이 성료됐다. 〈사진〉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창극단(김규형 예술감독),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한상일 지휘자),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김혜림 예술감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섯가지 매력과 제주방언을 더한 지역 간 문화교류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의 연희 놀이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도립무용단의 화려한 군무로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입춤소고로 마무리했다. 2부에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곡 민요 향연이 펼쳐졌다. 이후 제주도립무용단원들과 함께 합동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광개토 제주예술단과의 사물놀이 협연을 통해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서봉 방성춘 '문화재를 만나다'

빛고을국악전수관, 28일 토크콘서트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서봉 방성춘의 문화재 공연을 선보인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 문화재 보유자의 희로애락을 다루는 토크콘서트 '문화재를 만나다'를 선보이고 있다.

네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서봉 방성춘의 무대로 준비됐다. 공연은 2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공연은 국악곡과 해설을 곁들여 국악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관객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무형문화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무대에는 고수 김규형 명고가, 대담 이유선 민속학박사가 함께한다.

공연은 올해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서봉 방성춘

한편,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해 현재 국악문화학교 9개 강좌 17개반 및 어린이 국악교실 2개반의 국악강좌와 지역 국악인들의 대표적인 공연무대인 상설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을 운영하고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seogu.gwangju.kr/sgc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붙박이 '나무아빠'와 외톨이 '나무도령'의 따뜻한 마음

ACC '나무의 아이' 공연, 10월 15~16일 어린이문화원

세상에서 버림받은 붙박이 '나무아빠'와 외톨이 '나무도령'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항해를 떠난다. 남과 다른 아빠를 가진 아이가 서로 기대어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특히 따뜻한 마음의 중요성을 담고 있어 가슴이 훈훈해진다.

한국 전통설화인 '목고령과 대홍수'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어린이 음악극이 관객을 찾아온다. 오는 10월 15~16일(오전 11시, 오후 3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나무의 아이'는 지난 2019~2020년 ACC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공모를 통해 아트플랫폼 동화가 선보였던 작품이다. 2020년 ACC 어린이극장 초연 이후 온라인을 비롯해 전국 55회 이상 공연해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음악극 특징은 단순하고 평이한 언어,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여기에 전통악기 연주자로 이루어진 액터뮤지션과 배우들의 연기, 국악 라이브 연주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석 1만5천원이며 ACC 누리집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ACC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발전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 사료 속 '마한'

호남학 콜로키움, 2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일본 사료 속에는 마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술돼 있을까? 일본 사료 속 마한 관련 기사를 모티브로 한 호남학콜로키움이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일본 사료 속의 마한 관련 기사 재론'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콜로키움은 이근우 부경대 사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일본서기 사료를 검토하고 침미다례 도륙 기사와 남해 탐나 통교 기사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좌장은 연민수 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이 맡으며 토론자로 강은영 전남대 사학과 교수, 나행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박재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현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관심 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호남학콜로키움은 호남학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마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